

성탄절 카운트다운



그레첸 피클시머 키니
(실화를 바탕으로 함)

이 이야기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

“마티스! 에밀리언!” 엄마가 부르셨어요. “화환에 초를 켜 시간이지나.”

마티스는 책을 내려놓고 거실로 달려갔어요. 남동생 에밀리언도 형을 쫓아갔어요.

성탄절에는 마티스가 좋아하는 것이 많아요. 랩쿰 쿠키를 만들거나 나무를 장식하는 일 같은 것 말이에요. 하지만

마티스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성탄절을 준비하며 초를 밝히는 일이었어요.

마티스네 가족은 이걸 강림절 화환이라고 불렀어요. 화환에 달린 초를 나뭇가지 위에는 붉은 양초 네 개가 달려 있었어요. 독일 사람들은 성탄절 전야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일요일마다 초를 밝혀요. 첫 주에 초 하나를 켜고, 그다음 주에는 두 개, 셋째 주에는 세 개를 켜는 거예요. 그리고 성탄절 전야를 앞둔

일요일에는 초 네 개에 모두 불을 밝혀요.

마티스는 에밀리언이 양초 두 개에 불을 붙이도록 아빠가 도와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. 불꽃은 환하게 활활 타올랐어요.

“엄마, **강림절**이 무슨 뜻이에요?” 마티스가 물었어요.

“강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의 날들을 말한단다.” 엄마가 말씀하셨어요. “촛불을 켜면서 성탄절이 얼마나 남았는지 날짜를 기억하는 거야. 우리 집에 있는 강림절 달력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!”

엄마는 책장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집으로 손을 뻗으셨어요. 엄마는 그 집을 탁자 위에 올려 두셨어요. 마티스는 그 집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들떴어요.

올해 강림절 달력은 두 가지였어요. 이 달력들은 평범한 달력이 아니었어요. 성탄절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달력이었죠! 첫 번째 달력은 문이 24개가 달린 작은 나무집이었어요. 그 문들을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매일 하나씩 여는 거였어요.

“이제 네가 문을 열 차례야!” 엄마가 말씀하셨어요.

마티스는 방긋 웃으며 오늘 열어야 할 문을 열었어요. 안에는 작은 사탕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! 마티스는 그중 하나를 동생에게 주었어요.

아빠가 말씀하셨어요. “**강림**이란 중요한 누군가가 오거나 중요한 일이 다가온다는 뜻이야. 성탄절이 누가 오신 걸 기념하는 날인지 기억하니?”

“예수님이요!” 마티스와 에밀리언이 함께 외쳤어요.

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. “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렸어. 우린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야.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지상에 오실 거란다.”

마티스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지 상상했어요. 그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.

“다른 달력도 열어 보자, 마티스 형!” 에밀리언이 말했어요.

“알았어!” 마티스가 두 번째 달력에 손을 뻗었어요.

그건 오마(Oma: 할머니)가 손주들을 위해 손수 만든 신 달력이었어요. 바로, 리본 24개가 달린 옷걸이였어요.

리본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구가 적힌 쪽지가 접힌 채 달려 있었어요. 그 달력 덕분에 가족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매일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경전 구절을 읽을 수 있었어요.

마티스는 새로운 쪽지를 리본에서 떼 보았어요. “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”

마티스는 가족과 함께 타오르는 촛불을 보며 평안을 느꼈어요. 2주 후에는 네 개의 촛불이 모두 켜질 테고 성탄절을 기다리던 시간도 끝이 날 거예요! 하지만 마티스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게 성탄절만이 아님을 알았어요. 마티스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●

마티스는 성탄절에 초를 밝히는 전통을 제일 좋아했어요.



삽화: 바이블스토리 리메이

* 누가복음 2:10~11